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이번 휴가는...

사상 최대인원 출국, 연휴나 휴가철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각자 좋아하는 장소로 바쁜 일상을 벗어나 떠납니다. 물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 고향으로 휴가를 오기도 합니다. 7월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김없이 매일미사책 뒷부분에는 전국 피서지 인근 성당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육체적 정신적 쉼을 통해 머릿속에 가득차 있는 생각과 일상의 고민들을 비우고 다가올 일상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파견자로서의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였던,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제자들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제자들은 가르치는 일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대신 수행하며,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즉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로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에 시편 23편으로 응답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쉽으로의 예수님의 초대는 제자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단순한 연민을 느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본인이 겪으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회당에서 당신의 첫 번째 가르침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신 후 따로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 안에서의 쉬이 필요함을 아셨기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유한 기쁘지만 너무나도 수고로운 삶을 공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까지 공유했습니다.

현재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려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처럼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선포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부로서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행하고 있는 복음선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쁘지만 수고로운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쉬이 필요합니다. 외딴곳으로 가서 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쉬는 단순한 일상의 정리나, 생각의 정리, 몸의 휴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도 가득차 있던 머릿속 생각들 때문에 듣지 못하였던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늘 가슴속의 조그마한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에 이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굳이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묘사합니다.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은 가슴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쉬를 원하시나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십시오. 더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느님께서서 알고 계십니다.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 김재형 베드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분열된 내면이 새 인간으로 창조되고 적개심은 사라지는 평화의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열고 이 전례에 참여 합시다.

입당성가 : 51번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본기도

†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우며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예레미야서 23장 1절-6절

안 내 : 주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목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묵 상 : 주님께서서는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목자들을 엄중히 대하십니다. 당신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 번성하리라는 희망을 주시며 공정과 정의를 이룰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 에페소서 2장 13절-18절

안 내 :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양쪽으로 갈린 우리가 새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묵 상 :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분열된 요소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적개심을 없애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6장 30절-34절

강 론 : ‘이번 휴가는...’(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목자 없는 양들이 받는
위험과 멸시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 원하시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침묵>

사랑하는 사람이
가없고 측은한 처지에 놓일 때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하나로
온 힘을 다해 달려온 백성들과
그들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
하느님 나라가 실현 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 공소사목 성금

김선자	200,000원
이동택	50,000원
이성우	3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44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7일(화) 14:00-8일(수) 14:00
- 장소 : 우곡성지
- 장소 : 성소에 관심있는 초등부 남학생 (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가나 혼인 강좌

- 일시 : 8월 25일(토) 13:00-18:00
- 장소 : 안동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구
- 신청마감 : 8월 11일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7월 23일(월) 20:00
- 장소 : 예천성당
- 강사 : 김정숙 글라라(서울 대교구)

■ 꾸르실로 월레미사

- 일시 : 8월 20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사별성당 새성전 봉헌미사

- 일시 : 7월 25일(수) 17:00
- 주소 : 상주시 사별면 덕담1길 90
- 사제 준비물 : 장백의와 백색 영대

■ 여성 제40차 꾸르실로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시~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만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제86차 안동ME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8월 12일까지
- 신청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타종교인 가능
- 문의 및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 제17회 초록빛 교실(가족 캠프)

- 일시 : 8월 4일(토)14:00~5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단체
- 참가비 : 1인 2만원(3식 및 간식 포함)
- 신청 : 교구 사목국(054-858-3114~5) 선착순 100명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꽃동네 젊은이 성령 피정

- 일시 : 8월3일(금)13:00 ~ 5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치유미사 : 꽃동네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
-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
- 회비 : 3만원
- 문의 : 010-5490-5345

■ 제1회 청년 순교자 축제 TYM

- 일시 : 8월 31일(금) 17:00부터 9월 2일(주일) 14:00까지
- 장소 : 나바위-개갑장터
- 접수 : 7월 1일~7월 31일
- 회비 : 5만원
- 신청 및 문의 : 010-4677-4702 - 복사수도회 www.brotherhood.or.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식별

300.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해 보면 세계주교대의원회의나 이 후속 권고에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교회법과 같은 새로운 일반 규범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적 사목적 식별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경우마다 따르는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에서 규정의 결과나 효과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제들은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주교들의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양심 성찰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랑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내가 버린 배우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 나머지 가족들과 신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모범을 보여 줄 것인가?’ 참된 성찰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동반과 식별의 과정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깨달도록 이끌어 줍니다. 내적 법정에서 사제와 나누는 대화는 교회생활에 대한 더욱 온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것과 그러한 참여를 증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법 자체가 점진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에 이러한 식별은 결코 복음, 곧 교회가 제안하는 진리와 사랑의 요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식별을 위해서 다음의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겸손, 신중함,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 진심으로 하느님 뜻을 찾기, 하느님의 뜻에 더욱 맞갖게 응답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사제가 쉽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이들이 자신이 교회에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성사적 특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오해를 피하게 하려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공동선보다 자신의 바람을 더 앞세우지 않는 책임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당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목자와 만날 때, 구체적인 식별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중 잣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목적 식별에서의 정상 참작

301. 몇몇 이른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왜 특별한 식별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음의 요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협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늘 한 가지를 명심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상 참작의 요인들과 상황에 관한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죄 안에서 살고 있으며 거룩해지는 은총을 빼앗겼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규범에 대한 무지 이상의 것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규범을 잘 알고 있지만 “도덕 규범의 내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죄를 짓지 않고서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끔 하는 현실적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 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어떤 사람들은 은총과 사랑을 지니고 있어도 이러한 덕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도덕적이 덕을 내면화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을 걸어로 드러내어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 성인들이 모든 덕의 자질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 덕을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덕을 지니지 못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302.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인책성과 책임은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외에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교리서는 다른 항에서 다시 한 번 도덕적 책임을 경감시키는 상황을 언급하며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숙한 정서, 습관의 힘, 불안 상태나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줄이거나 어찌면 거의 없앨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당사자의 인책성이나 유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저는 많은 시노드 교부들이 단언하고자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목적 식별은 그 사람의 올바르게 형성된 양심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조차도 모든 경우에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303. 사람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혼인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객관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몇몇 상황들에 교회가 대처할 때에 개인의 양심을 더 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계몽되고 형성되어, 목자의 책임 있고 신중한 식별을 따르는 양심의 성숙을 촉구하고 은총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우는 것이 분명히 필요 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주어진 상황이 복음의 일반적 요청에 객관적으로 맞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관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참되고 솔직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비록 아직 온전한 객관적 이상에 맞가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각자의 구체적인 복잡한 한계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임을 도덕적 확실성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식별은 역동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식별은 성장의 새로운 단계와, 이 이상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에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좋은 말

김옥한 리오바
(안동가톨릭문인회)

가족 네 명이 전라도 맛 기행을 갔다. 모두 먹는 것을 좋아하여 최고의 맛 집을 찾아다녔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어릴 때도 어른 위주 식단이였다. 여름에는 깻잎, 호박잎, 팔잎과 찢 된장에 쌈을 싸 먹었다. 도시락 반찬도 감자볶음과 멸치, 나물무침 같은 것을 넣어 주었다. 점심시간이면 햄 소시지에 질린 아이들과 그것이 먹고 싶은 우리 집 애들이 서로 반찬을 바꿔 먹었다고 한다.

성인이 된 아들은 어릴 때 먹지 못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고기와 가공식품을 좋아한다. 내가 옆에서 일일이 챙겨주지 못하니 만나면 자주 잔소리를 하게 된다. “고기는 기름기 다 떼어내고 먹어라”, “가공육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색소가 든 음식은 먹지마라”, “동태나 고등어는 방사능에 오염 되었을 수도 있다” 등등. 만나기만 하면 정보를 홍수처럼 쏟아낸다.

거기다가 “아침에 눈뜨면 양치부터 해라”, “식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셔라”며 모두 자식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이동풍 격이었다. 여행 중에도 잔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못마땅한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여행 왔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자”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든다. 만날 때마다 “~해라, ~하지마라” 소리를 녹음기 틀듯 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수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주기별로 성직자들이 정착마을에 가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엔 수녀님 차례가 되었다며 같이 가자고 했다. 잠시 멈칫하는 나에게 다시 부탁을 했다.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터라 따라나섰다.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하늘이 손바닥만 하게 보이는 한 작은 산속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보다 닭똥 냄새가 먼저 달려와 인사를 건넸다. 차 소리를 듣고 몇몇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가이 맞았다. 일하던 사람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모였다.

대표님께서 한 말씀했다. “수녀님요, 있잖니께. 오늘은 좋은 말씀 하시지 말고 저 방에 술이랑, 과일이랑, 갓 시집온 암탉이 낳은 계란도 삶아 놓았으니 실컷 먹고 노시더. 우리는요, 오시는 분들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진절머리가 나요. 노래방 기기도 있으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재미있게 한바탕 노시더, 예” 한다.

수녀님도 이해가 간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웃는다. 그래도 임무를 띠고 왔으니 세상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고는 약속을 하고 강당으로 갔다. 우리는 방을 옮겨 준비한 과일도 먹고 막걸리 잔도 기울이며 맛있는 계란도 먹었다. 과일도 맛있었지만 새댁 닭이 낳은 계란은 쫄쫄하니 정말 맛있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신나게 놀고 나니 그들의 얼굴엔 화기가 돌았다. 수녀님이 밤잠 설치며 준비한 원고는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듣고 저렇게 행복할까 궁금했다. 어느덧 산 그림자가 마당으로 내려왔다. 집에 가서 먹으라며 싸주는 계란을 들고 기분 좋게 돌아왔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훈적이거나 충고로 들리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 심지어 각종 매체로부터 쏟아지는 좋은 설교 같은 말들은 아예 듣기 싫다는 사람도 많다. 성장 과정에서 간섭을 많이 받아온 탓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보다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깨달음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한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겠다.